새마을운동의 세계화

기사: 김현지, 이예빈

한국은 1970년대에 '새마을운동'이라는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을 통해 크게 발전했다. 코이카는 이러한 한국 발전의 기초가 된 운동을 개발도상국에 접목하고자 한다. 따라서 코이카는 2010년부터 3년동안 에티오피아 아르시 마을에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의 목표는 농촌지역주민의 의식개혁과 소득증대를 통한 빈곤감소이다. 이 점은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새마을운동'은 가난한 농촌의 소득을 높이고, 낙후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실시한 운동이다. 이 전에는 자동차가 드나들 수 있는 마을은 30%에 불과했다. 하지만 새마을운동을 통해 시골길을 정비함으로써 이는 농가소득 증가라는 눈부신 성과를 가져왔다. 8년 사이에 농촌소득이 6배 이상 증가하며 도시 노동자의 소득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에티오피아의 토지 경작률은 81.1%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농업 생산성이 낮다. 주된 요인으로는 관개시설 부족, 낮은 기술 수준이다. 따라서 코이카는 에티오피아 내에서도 열악한 지역을 선발하여 영농교육을

통한 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이 사업을 통해 축산개량, 영농개선, 주거환경개선,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이루려고 했다. 특히, 한국의 새마을운동이 주민들이 스스로 이뤄낸 결과인 만큼 아르시의 새마을운동 또한 주민참여형으로 이뤄져 이후에도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그렇다면 '아르시 농촌개발사업'은 어떤 부분에서 '주민 참여형'으로 불릴 수 있을까? 창문의 부착, 공동 축사 울타리 설치, 마을 진입로 개선에 직접 주민이 참여했다. 그 예로 불차나-갈로마을 도로개선이 있다. 갈로마을은 차량의 진입과 통행이 어렵고 작은 오솔길 형태의 길만 있었다. 축사건축과 주택개량 사업을 위한 수송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도로개선이 불가피하였다. 이는 새마을운동의 협동정신이 투영된 마을주민들의 공동작업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며, 8일간 430명의 갈로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4km의 도로가 완성되었다. 이것은 소농의 자립역량강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을, 공동체라는 의식 개선에도 또한 영향을 주었다.

이때까지의 개발원조는 봉사자들이 지원해주고 돌아오거나,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는 형식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한국형 새마을운동은 이러한 단순히 경제적인 원조만 하는 공여국들과는 다르게 농촌의 낙후한 환경을 개선하고, 기술성장을 돕는 등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었고, 무엇보다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게 만든 것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게 한 점에서 주목할 만 사업이다. 코이카는 사업종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전문가와 봉사자를 파견하여 주민들의

자립을 지원하고 있다.

출처

Picture

출처

Picture 1,2,3

http://www.koica.go.kr/WEBZINE/2013-september/sub9.php

내용

http://www.koica.go.kr/WEBZINE/2013-september/sub9.php

http://www.koica.go.kr/mobile/press/1312393_2836.html

http://news.donga.com/3/all/20100630/29507586/1